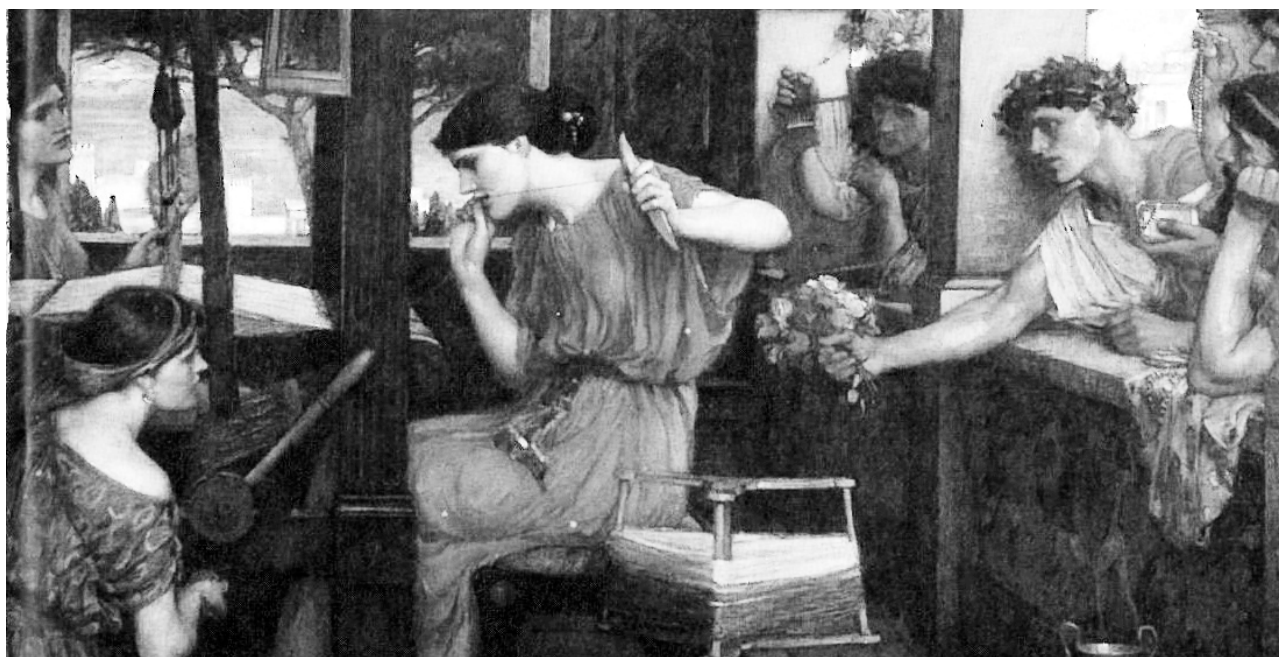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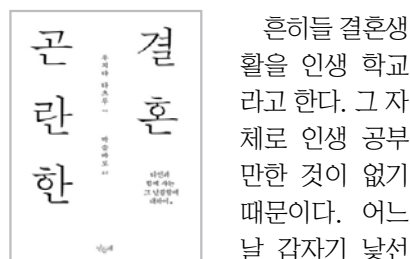


# 가족의 탄생, 그 기적을 이루는 즐거움

## 근란한 결혼

우치다 타츠루 지음, 박솔바로 옮김



결혼생활을 흔히 인생학교라고 말하는 것은 낯선 타인과 가족이 돼 부대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은 잘 모르는 이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멋진 것인지 모른다. 사진은 워터 하우스 작 '결혼해 주세요'.

한집에서 부대끼며 사는 것은 기적이 가깝다.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뭔가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몇 번째의 결혼생활이든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예전 주례사에서 많이 들던 '백련해로'라는 말은 더 이상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 말 그대로 교과서적이고 이상적인 말이다. 대부분의 결혼생활은 '숨막힘과 노여움, 좌절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인 학교생활이 그러듯이 말이다.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와 맞물려 결혼 기피 풍조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삼포, 사포, 오포 세대라는 말이 보편화된 지 오래다. 더욱이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 맞닥뜨리게 될 여러 여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 여기에 육아와 교육문제는 결혼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일수록 결혼을 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현대 일본의 대중적인 사상가인 우치다 타츠루는 '잘 모르는 사람과 살아가기 때문에 멋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펴낸 '곤란한 결혼'은 한마디로 오지랖 넓은 '아재'의 결혼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곤란한 결혼'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책은 "타인과 함께 사는 그 난감함에 대하여" 말한다. 다시 말해 '결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일의 어려움'을 담고 있다.

저자는 "타인이란 건 본래 매우 멀리 있는 존재"라며 "그렇게 '멀리 있는 사

람'을 만질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을 꼭 안아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말한다.

또한 "배우자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건 심중발구 그 배우자 본인도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덧붙인다. 중요한 것은 "당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질문에 바로 대답할 이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잘 모르겠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고, 함께 생활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족하다.

저자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권태 극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생이 즐거우면 권태기가 찾아와도 치명적이지 않다. 권태에 빠진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모습에 질려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타인에 대한 호기심은 자기에 대한 호기심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미지의 자질이 잠들어 있는지 미개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 진지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질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들레·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상투어도 곱씹게 만드는 문학평론가의 글

## 마음을 건다

정홍수 지음



문학평론가의 산문집은 결국 '문학', 더 넓게는 다양한 '책'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한다. 세상 살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만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다.

문학평론가 정홍수의 첫번째 산문집 '마음을 건다'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산문집에서는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불합리한 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만날 수 있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써온 글들을 묶은 이번 산문집은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사람들은 살아가고 버텨낸다'는 그가 만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서른 다섯살에 시간이 멈춰버린 김소진 19주기에 다녀 온 후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은

기억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존심'에 대해 들려준다.

'살아생전 유난히 꽃을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하늘 정원에 꽃나무를 심으시나 보다/자꾸/내 머리카락을 뽑아 가신다'고 노래한 고영 시인의 '탈모'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서 현실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면서 생각으로부터도 우리를 차단하는 '상투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일상이 어느 만큼 상투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그것대로 이해해더라도 그 상투어들의 울타리 바깥에서 생각과 말의 길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부 '이야기가 사라지는 시절'에서는 세월호와 글쓰기, 신문에 단상, 한강의 수상을 축하하며 등 문학과 좀 더 밀착된 글을 선보인다. 3부 '세상의 시간, 세상의 풍경'에서는 비참과 고통이 늘어나는 시대에 '연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다르네 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 대만 감독 허우 샤오셴, 차이광량 등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렸다.

책을 읽다보면 윤성희의 소설 '이름', 필립 로스의 '네메시스', 이정준의 '벌레 이야기', 황정은의 '웃는 남자', 성석제의 '투명인간' 등 다양한 책들과 만날 수 있다.

평론집 '소설의 고독', '흔들리는 사이 언뜻 보이는 푸른 빛' 등을 펴낸 정 평론가는 2016년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창비·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고전으로 철학하기=무력감과 좌절을 안기는 시대에 '나의 나뭇'과 '다른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이하준 교수의 사회고전 안내서. 게오르그 짐멜, 장 보드리야르, 피에르 부르디외,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등 생명력을 과시하는 학자들의 사회고전 역자 24편을 통해 우리 사회와 개인이 당면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진단한다. 한마디로 '사회고전'이라는 망치를 들고 기존 사회의 규정과 가치를 심판대에 세우는 책이다.

〈책읽는수요일·1만5000원〉

▲페소아의 리스본=20세기 유럽문학을 대표하는 포르투갈의 국민 작가 레르난두 페소아가 안내하는 리스본 가이드북. 페소아는 밀란 쿤데라, 욱타비오 파스, 주제 사라마구, 페터 한트케 등 작가들이 사랑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페소아에게 리스본은 그저 한 도시가 아니라 포르투갈이라는 한 나라가 응축된 장소로 남아프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에게는 한없이 그리워하며 돌아가야 할 고향이었다.

〈컬처그래피·1만5000원〉

▲생존과 승리의 제왕학, 병법 노자=젊은 동양철학자로 제자백가의 사상의 진수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해온 저자 김근순이 선보이는 두 번째 병법 해설서. 저자는 그간 한국의 학계에서는 '노자'를 제자백가의 다른 텍스트와 연결지어 해석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도가(道家)라는 한 학파의 틀



로만 읽고 해석해왔음을 비판한다. '노자'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려면 '관자', '손자 병법', '여씨춘추', '한비자' 등 다른 텍스트와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서해문집·1만6000원〉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죽음은 삶의 일부이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책은 저자가 임종 환자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삶을 정리하는지, 그들이 죽음의 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을 정리한 '삶과 죽음'에 대한 감동과 성찰의 에세이다. 저자는 죽음을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인물과사상사·1만4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기한 일기는 일기를 통해 소꿉친구들을 배우며 성장해가는 소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지만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갈팡질팡하는 아이들,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아이들, 노력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아이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 준다.

〈책과 콩나물·1만1000원〉

▲발가락=행복한 꿈 여행을 돕는 잠자리 그림책. 이불 속에 있는 내 지친 발에 "잘 자!"하고 인사를 하지만 발가락은 아직은 자고 싶지가 않다. 볼로냐 라기치 대상 2회 수상에 빛나는 작가의 특별한 상상력으로 익숙한 듯 다르게, 잘 아는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색다른 그림책이다. 잠들기 전 엄마와 아이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어느새 먼 나라로 떠난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책이다.

〈논장·1만1000원〉

▲수영장 절대 안가! =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앞두고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



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난생처음 수영 수업을 받게 된 시몽은 흥분되는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 수영을 배우려면 넓고 물도 깊은 수영장에 가야하기 때문. 시몽은 깊은 물 아래에서 괴물이 쫓아오는 악몽까지 꾀다.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부들부들 떠는 시몽은 과연 수영을 배울 수 있을까?

〈하울림어린이·1만2000원〉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 치평동 삼성화재인근 중심상가

조정가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근 린 시 설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성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111평 감정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120평 건물614평 매매가 38억
공 장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내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서구 마북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노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

##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 010-8559-8905 이용국 팀장